

# 1979년에서 1980년대 초반 법적 처벌과 사회적 처벌 사이

— 김성중 추리소설의 범죄자 유형의 변모를 중심으로\*

최 애 순\*\*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오병호 형사의 상징적 죽음 이후 작품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지고, 동정적 범죄자 유형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와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부랑의 강』(1979),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 『나는 살고 싶다』(1981), 『백색인간』(1981)을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1978년 『제5열』 계열이 아닌 치정에 얽힌 살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산층 범죄자와 연쇄살인범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부랑의 강』을 중산층 가정의 치정(불륜, 강간) 중심사건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 보고, 『부랑의 강』이 출간된 1979년부터 범죄자가 변모하게 된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1979년을 기점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정권이 넘어가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던 시기의 김성중 추리소설 속 범죄자의 변모 양상에 주목하여 당시 대중의 범죄 감각과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았다.

김성중의 1970년대 초반 단편소설과 『최후의 증인』에 등장하던 어린 식모, 창녀, 가난한 어부, 무죄한 사형수 등의 동정적 범죄자가 1979년부터 1981년의 작품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욕망의 화신으로 변모하고, 갈등하던 오병호 형사와는 다르게 형사라는 역할에 충실한 히마태나 오병암 형사가 등장한다. 역할에 충실한 형사와 잔인해지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형사는 범죄자를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임무까지 완수했는지를 따라가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처벌' 사이에서 대중이 느끼는 강도는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범죄자에

\* 이 논문은 2024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부교수

게 가해진 처벌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작품들에서는 이전의 작품들과 다르게 배경도 도시적으로 변모한다. 창녀촌, 섬, 시골의 저수지 등에서 호텔, 아파트, 자가용 등으로 범죄 현장이 도시적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전의 공간이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밀려난 공간이라면, 호텔이나 아파트는 그 중심에 있는 화려한 공간이다. 더불어 방인근과 허문영 소설에서 보이던 뒷골목의 부랑이나 하층민의 범죄자는 자취를 감추고 출세와 상승 욕망으로 꿈틀대는 '중산층 범죄자'가 등장하게 된다.

주제어: 1979년, 1980년대 초반, 법적 처벌, 사회적 처벌, 김성중, 추리소설, 중산층, 범죄자, 연쇄살인, 가정

## 목차

1. 서론
2. '범죄자 개인'의 사건 조작과 중산층 범죄자의 등장 - 『부랑의 강』(1979)
3. 연쇄살인의 등장과 남성의 복수전: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 『나는 살고 싶다』(1981)
4. 정신병적 범죄 소유자와 욕망의 여성 인물 탄생 『백색인간』(1981)
5. 결론

## 1. 서론

1970년대는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관광산업이 육성되었다.<sup>1)</sup>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서울의 호텔은 닿을 수 없는 꿈 같은 곳이면서도 욕망을 자극하는 곳이었다. 반면 재벌이나 중산층들은

1) 관광업의 중추인 호텔산업에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었고, 프라자(1973), 롯데(1973), 신라(1977), 하얏트(1977), 힐튼(1977) 등의 호텔이 1970년대 대거 생겨난다.(김미영, 「호텔과 '조국 근대화'- 1960~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1호, 2019.3, 66-67면 참조)

호텔에서 쾌락과 욕망을 충족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만끽했다. 도심계 개발과 불량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화려한 서울 도심을 반짝이는 불빛들로 채워 나갔는데도, 납치, 강간, 살인과 같은 도시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다. 1975년 한국 최초이자 17명이나 살인을 한 ‘연쇄살인범’ 김대두가 검거된다.<sup>2)</sup> 급속한 산업화와 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sup>3)</sup>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1970년대 육성된 호텔은 종종 추리소설에서 불륜, 치정, 정사의 공간으로, 나아가 살인이 자행되는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아파트는 안정된 가정의 상징이 되었으며, 중산층에 진입하고 싶은 자들의 투기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범죄가 만연하고 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1970년대 추리소설 속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범망을 피해 가거나 법적 처벌이 아니라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는다. 법적 처벌을 받는 이들은 억울하게 누명 쓴 자들이다.

김성중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끈질기게 추리소설에서 사법제도와 사형제도의 불합리함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그의 추리소설은 1978, 1979년 후반으로 가면서 불합리한 사법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원한이 있는 이에게 자신의 죄(살인)를 뒤집어씌우는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가 등장한다. 시골의 무지하고 어린 소녀였던 피해자들은 범망을 피해 가는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시 산업사회에 걸맞게 자신의 욕망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캐릭터로 변모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범죄자가 변모하게 된 시점이 1978년과 1979년의 1970년대

- 
- 2) 「세탁소 신고로 잡은 ‘17명살해범」, 『조선일보』, 1975.10.9., 조간 7면; 「외판집 연쇄살인범 검거」, 『조선일보』, 1975.10.9., 조간 1면; 「인간존엄성 되찾자」, 『조선일보』, 1975.10.12.; 「부산 어린이연쇄유괴 살해범도 우리들 시민이 잡자」, 『조선일보』, 1975.10.11., 조간 7면.
- 3) 김대두는 “남산의 수많은 불빛 중 내가 있을 곳을 한 곳도 없었다”, “남들처럼 낯발나게 살고 싶었다”고 한다. 호텔, 아파트 등의 도시 재건과 산업화는 결국 범죄와 욕망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1978년, 1979년을 1970년대 추리소설에서 여성 살인범이 등장한 기점으로 삼거나<sup>4)</sup>, 혹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를 특정 돌출 시기로 잡는<sup>5)</sup> 것은, 각각 다른 포인트로 변화의 조짐을 포착한 것이지만 묘하게 1979년 10.26과 12.12 사태 이후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으로 바뀌던 시점과 겹쳐진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사반장>에서도 P.D나 작가가 교체되어 잔인한 범죄자의 등장과 형사의 추적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사회극으로 바뀐 시점도 1978년이다.<sup>6)</sup> 본 논문에서는 유신정권 말기에서 신군부 정권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고자 한 움직임이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자,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계속해서 동정적 범죄자를 등장시켜 사법제도와 법적 처벌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신군부 정권의 사회정화 기능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형사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추리소설의 본질과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8년의 『제5열』 계열이 아닌 치정에 얽힌 살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산층 범죄자와 연쇄살인범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부랑의 강』을 중산층 가정의 치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 보고, 『부랑의 강』이 출간된 1979년부터 범죄자가 변모하게 된 양상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1979년을 기점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정권이 넘어가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던 시기의 추리소설 속 범죄자의 변모 양상에 주목하여 당시 대중의 범죄 감각과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고자

4) 정혜영, 「1970년대 한국범죄소설과 살인하는 여성들」, 『현대소설연구』, 2025.6, 157면.

5) 안혜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 조혜일의 『갈 수 없는 나라』, 박범신의 『형장의 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22.6, 303면.

6)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3.8, 84면.

한다.

1970년대 소설에서 범죄자의 법적 처벌은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과 돈의 유무에 따라 가려졌으며,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휘말리게 되어 사형을 언도받거나 무기징역을 받은 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sup>7)</sup> 김성중 추리소설뿐 아니라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유현종의 『화요일의 여자』, 현재훈 「절벽」, 『뜨거운 방하』에서 처음에 피해자였던 인물이 가해자로 혹은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려서 도망 다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던 시기<sup>8)</sup>에 평범했던 인물들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가는지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오병호 형사의 상징적 죽음 이후 작품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지고, 동정적 범죄자가 아닌 잔인한 범죄자와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부랑의 강』(1979), 『일곱 개의 장미송이』

7)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포' 의식과 마음의 정치- 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박교어문연구』 제37집, 2014.8;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2013.3; 안혜연,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박범신의 『형장의 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2호, 2022.6.

8) 안혜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 추리소설 붐과 그 사회적 맥락」, 『인문과학』 제85집, 2022.5, 193-234면; 안혜연,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재벌 표상-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박범신의 『형장의 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2호, 297-328면; 안혜연, 「김성중 추리소설에 나타난 남성성의 균열과 재건- 『제5열』과 『일곱 개의 장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22.6, 55-82면; 정혜영, 「1970년대 한국 범죄소설과 살인하는 여성들」, 『현대소설연구』 98호, 2025.6, 157-187면; 최애영, 「김성중의 『제5열』-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대중서사연구』 제23호, 2010.6, 125-158면. 1978, 1979년이라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따로 뽑아내거나, 혹은 김성중 추리소설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지점으로 삼고 있다. 1970년대에서도 1978년과 1979년부터 변화의 기점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 『나는 살고 싶다』(1981), 『백색인간』(1981)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초반 단편소설과 『최후의 증인』에 등장하던 어린 식모, 창녀, 가난한 어부, 무죄한 사형수 등의 동정적 범죄자<sup>9)</sup>가 1979년부터 1981년의 작품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욕망의 화신으로 변모하고, 동정적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갈등하던 오병호 형사와는 다르게 형사라는 역할에 충실한 하마태나 오병암 형사가 등장한다. 역할에 충실한 형사와 잔인해지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형사는 범죄자를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임무까지 완수했는지를 따라가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처벌’ 사이에서 대중이 느끼는 강도는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범죄자에게 가해진 처벌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작품들에서는 이전의 작품들과 다르게 배경도 도시적으로 변모한다.<sup>10)</sup> 창녀촌, 섬, 시골의 저수지 등에서 호텔, 아파트, 자가용 등으로 범죄 현장이 도시적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전의 공간이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밀려난 공간이라면, 호텔이나 아파트는 그 중심에 있는 화려한 공간이다. 더불어 방인근과 허문영 소설에서 보이던 뒷골목의 부랑이나 하층민의 범죄자는 자취를 감추고 출세와 상승 욕망으로 꿈틀대는 ‘중산층 범죄자’가 등장하게 된다.

9) 최애순, 「1970년대 동정적 범죄자와 법적 처벌 문제- 김성종의 단편소설과 장편 『최후의 증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8집, 2025.4, 37-72면 참조.

10) 최애영, 「김성종의 『제5열』-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대중서사연구』 제23호, 2010.6, 133면.

## 2. ‘범죄자 개인’의 사건 조작과 중산층 범죄자의 등장 - 『부랑의 강』(1979)

### 1) 중산층 가정의 균열과 범죄 배경의 이동

『부랑의 강』(1979)은 김성중 작품 세계가 『최후의 증인』과 단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sup>11)</sup> 1979년은 1974년 살인 사건으로 검거된 오휘웅의 사형이 집행된 해이다. 오휘웅 사건은 당시 사형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논란을 빚으며 오휘웅은 억울한 사형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1979년 『부랑의 강』은 조동일이라는 48살의 R건설의 상무이사가 자신이 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를 다룬다. 『최후의 증인』의 황바우가 힘이 없고 무지했던 것과 달리, 조동일은 잘 나가는 기업의 상무이사로 안전한 가정을 꾸려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출세한 모범 가정’이다. 『부랑의 강』에서 아내 양인숙의 살인 동기는 남편 조동일의 20살 넘게 차이 나는 여대생 소희와의 ‘불륜’이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자들의 치정 관계에 얽힌 살인<sup>12)</sup>은 김성중의 『나는 살고 싶다』(1981)나 현재훈의 단편소설 「절벽」(1978)이나 『뜨거운 빙하』(1977), 유현종의 『화요일 밤의 여자』(1978) 등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산층 가정에 균열을 내는 불륜,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은 범죄의 배경을 시골에서 도시의 중심으로 옮긴다.

『부랑의 강』에서의 배경은 조동일과 소희가 밀애를 즐겼던 <까뫼의

11) 『제5열』(1978)에서도 호텔, 공항 등 범죄 배경이 달라지게 됨을 최애영이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5열』과 같은 스파이 계열의 작품이 아닌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추리소설에서 대표적인 살인 동기로 제시되는 ‘치정살인’ 위주의 작품을 다루었음을 밝힌다.

12) 현재훈의 「곰팡이」는 소설 내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자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절벽』, 행림출판, 1985, 71면)이라고 추정된다는 신문 기사가 삽입된다. 현재훈의 신문 기사의 삽입은 당시 일어났던 실제 사건 기사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1979년 오휘웅은 ‘치정 관계에 얽힌 살인’으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집)이라는 살롱, 남양호텔, 조동일이 한밤 영화를 본 극장, 양인숙이 살인을 한 백화아파트 등이다. 『부랑의 강』 이전 소설에서 지리산자락(「낮」)이나 창녀촌(「어느 창녀의 죽음」), 뒷골목(「빛과 어둠」)이었던 것과 달리, 시골의 읍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변두리나 뒷골목이 아니라 화려한 중심심으로 이동한다. 살롱은 하층민이 다니던 선술집이나 젊은이들이 다니던 바와도 다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유한 중년층들이 다니던 곳이었다. 더불어 억울하게 누명 쓴 자도 무지하고 힘없는 자가 아니라 중산층의 모범 가장이다. 조동일의 불륜 공간과 양인숙의 살인 현장은 유흥과 쾌락의 공간과 주거 공간이라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아파트는 중산층 가정의 대표적 표상이다. 가정주부의 아파트 투기는 남편 몰래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남성들의 범죄 현장은 절대 자신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아니다. 그들의 강간, 불륜, 정사의 범죄는 호텔, 살롱,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벌어진다. 반면 여성의 범죄 현장은 주거 공간인 아파트나 주택이다. 양인숙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편 몰래 소희 옆집 아파트를 사들여서 범죄에 이용한다. 주거 공간 이외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질 수 있는 재력과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력이 있는 아내, 남편 몰래 뒷돈을 챙기는 아내는 가정의 유지에 있어서 불온하고 위험한 요소이다. 아내는 주거 공간에 늘 있어야만 가정이라는 것이 화목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곱개의 장미송이』나 『나는 살고 싶다』에서 남편의 살인은 아내의 외박이나 외출로부터 시작된다. 『부랑의 강』의 조동일은 아내의 집 밖으로의 외출, 아파트 투기를 알지 못해 죽음을 맞는다.

『부랑의 강』의 조동일 가정은 1970년대 후반의 중산층 가정의 안정된 틀을 보여준다. 출세한 가장, 현모양처 아내, 그리고 대학생 딸로 구성된 형태의 가족은 1970년대 가족계획 표어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 김성종의 데뷔작 「경찰관」(1969)에서 가난한 어부가 영아를 살해하고도 굶는 다섯 자식을 걱정해야

했던 것과 대비된다. 1972년에서 1976년의 표어와 대중매체에서 가족의 표상을 4인 가족으로 구성하여 방영한 이래, 『부랑의 강』(1979)의 조동일 가족이나 『백색인간』(1981)의 하마태 형사의 가족은 모두 딸 하나밖에 없다. 1979년과 1980년대 초반 딸 하나밖에 없는 가정은 드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리소설은 1980년대부터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표어에 부합하는 ‘잘 키운 딸을 내세운 핵가족’으로 부러움을 사는 중산층 가정의 이미지를 전파시킨다. 중산층 가정의 모델에서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균열이 나게 마련이다.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 미혜는 살인자의 딸이 된다. 금가기 시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는, 아내가 아닌 딸 미혜이다.

“우리 아빠는 살인범이 아니에요.”라고 굳게 믿는 딸 미혜는 약혼자와 함께 엄마도 포기한 아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경찰이 살인범을 잡았다고 해도 그 살인범이 진짜인가를 의심하며, 누명을 쓴 자들의 누명을 경찰이나 법이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다. 미혜와 약혼자 최명호는 아버지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sup>13)</sup> 결국 범인이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엄마임이 밝혀진다. 미혜의 엄마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을 때는 이미 조동일은 사형집행을 당한 이후이다. 『부랑의 강』에서 김두식 형사는 다시 한번 수사해 달라는 미혜의 말을 거절하고, 사법부는 빠르게 사형을 선고한다. 조동일의 무죄를 증명하고 진범을 밝혀낸 것은, 형사나 사법부가 아니라 가족인 딸 미혜이다. 『제5열』(1978)에서도 실종된 아버지를 추적하는 것은 아들 최진이다. 가장의 무

13) 1978년 이후 추리소설에서는 종종 범이 범피자를 제대로 처벌해 주지 않아 개인이 직접 복수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범이 해결해 주지 않아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에서 강간당한 애인의 사적 복수를 하는 윤창배가 있다면(안혜연,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속 제벌 표상-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박범신의 『형장의 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2호, 2022.6, 307면), 『부랑의 강』에서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혜와 그의 약혼자 최명호가 있다.

죄를 위해 혹은 실종된 가장을 찾기 위해 아들 최진은 자신의 목숨을, 딸 미혜는 자신의 강간을 대가로 치른다.

김성중의 1970년대 소설에서 강간으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형사의 추적을 받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부랑의 강』에서 조동일의 딸 미혜를 강간한 세 명의 남성은 미혜가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더군다나 미혜의 강간은 최명호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갈등의 요소조차 되지 못한다. 강간 범죄에 대한 인식은 미혜처럼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법적 처벌 대상에 오르지 않거나, 혹은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넘어가서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에서처럼 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강간자들을 살해하는 사적 복수를 낳는다. 『부랑의 강』에서 미혜의 강간 사건은 그녀가 아버지 조동일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의식을 자각하는 ‘기형적인’ ‘성장의 계기’로 작동한다.<sup>14)</sup>

『부랑의 강』에서 균열된 가족 관계는 부녀가 아니라 모녀 관계이다. 자기 나이의 여대생과 불륜하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며 소회를 사랑했었다고 말하는 아빠의 법정 증언에도, 미혜는 아빠에 대해 그다지 분노하지 않으며 엄마에게 아빠를 용서하라고 한다. 아빠의 불륜은 가정이 깨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살인자의 딸’이 되는 것이 더 끔찍한 것이었다. 딸 미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가장에게 살인죄를 씌운 아내이자 살인자 엄마로 인해 파멸한다. 양인숙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했지만, 한발 늦어 가장인 남편의 사형을 막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는 살인죄로 사형당하고, 그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엄마였다는 것은, 행복해 보이던 중산층 가정의 파괴를 불러온다. 중산층의 안정된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 순간 문제가 된다. 미혜의 분노와 독자의

14) 박수현, 「1970년대 소설과 강간당하는 여성」, 『비교한국학』 22권 2호, 2014.8, 161면. 박수현은 남성들은 여성이 강간에 동의했다고 상상하며,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거나 여성을 성장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고 한다. ‘이로운 강간’과 남성 판타지에 대한 장 참고.

분노는 어머니가 아내인 양인숙에게 향한다. 1979년 『부랑의 강』의 양인숙의 ‘자살’은 동정적 요소가 아니라 살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된다.

## 2) 여성의 악마화와 ‘범죄자 개인’의 복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의 피해자였던 대중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던 1979년과 1980년대 초반 사법제도의 불합리함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억울한 자가 범죄자로 사형수가 되던 시절,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워 사건을 조작한다. 이제 사법제도의 악용과 사건의 조작은 정부나 사법당국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독버섯처럼 일반 대중에게 퍼진 바이러스이다. 사건을 조작하고 다른 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자는 일반 대중이자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애인이 된다.

『부랑의 강』은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드물게 ‘재판정’에서 조동일의 살인죄를 심문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조동일이 살인자나 아니냐의 유죄와 무죄보다, 그의 불륜과 사회와의 관계를 벌인 장소, 사회에 대한 사랑의 확인 등을 묻는 심문은 범죄 과정을 밝히는 재판이라기보다 그의 치정 관계를 밝히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재판에 더 가깝다. 직접적인 재판과정과 사형 판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은, 조동일이 억울하게 누명 쓴 상태로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부랑의 강』이 출판된 1979년 9월은 10.26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이미 오일쇼크로 악화된 경제로 인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위기는 1978년 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김성중은 1979년 억울한 사형수 조동일의 사형이 내려지기까지의 속전속결 과정, 조작된 증거에 쉽게 넘어가 용의자에서 범인으로 굳혀 버리는 형사들의 안일한 행태, 이미 사형이 집행된 뒤에 진범이 밝혀지는 최악의 상황 등을 연출해 놓는다. 그리고

작품 내에서 반복적으로 소희가 살해당하는 날 조동일이 본 영화 〈나는 살고 싶다〉를 삽입한다.

〈나는 살고 싶다〉(1958)는 1964년 국내에 개봉되어 1972년, 1986년 TV에서 꾸준히 방영될 정도로 인기를 끈 ‘사형제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영화로, 조동일의 감정을 대신하듯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나는 살고 싶다〉에서 억울한 사형수는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한 ‘여성’이다. 그러나 김성중은 이 부분을 바꾸어서 억울한 사형수를 ‘남성’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남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진범을 ‘여성’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뒤바뀐 억울한 사형수는 사법제도의 불합리함과 사형제도의 성급함에 대한 비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는다. 바로 그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살인죄를 뒤집어씌워서 억울한 사형수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 아내였다는 충격적인 반전 때문에, 독자의 분노는 사회나 국가의 사형제도의 불합리함이 아니라, 아내 즉 ‘범죄자한 개인’에게 몰린다. 추리소설과 같은 대중소설은 작가의 의도와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대중의 감성이 맞물려서 전혀 다른 파급효과나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1970년대 억울한 옥살이의 한 사례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자였다면, 다른 한 사례는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 1970년대 신속한 판결과 성과 위주의 실적을 강조했던 관리행정 시스템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한 사람을 억울하게 몰아가서 누명을 씌운 사례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형집행의 논란을 키운 것은, 1979년 사형된 오휘웅 사건이다. 내연녀의 증언으로 일가족 살해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오휘웅은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다. 1977년과 1978년 하서출판사와 동서문화사에서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이 차례로 번역되어 국내에 유입된다. 아내 살인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집행 이전에 자신과 시간을 보낸 여자를 찾아야 하는 절박함은, 집행 날짜가 다가오는 긴박감과 함께 억울한 사형수에 대한 독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부랑의 강』(1979)은 민감한 시기에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억울한 사형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부랑의 강』은 젊은 여대생과 불륜을 저지른 조동일(48세)을 건달이나 패륜남보다는 한 여자를 사랑했던 신사다운 중후한 이미지로 그려낸다. 불륜을 저지른 소희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을 공부시키는 착실한 가장 역할을 하는 성실한 이미지로 묘사한다. 조동일은 법정에서 불륜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돈이 있어 유흥업소의 여성이 아닌 여대생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중산층 남성의 변명이다. 소희가 죽은 후 그녀의 소지품에서 값비싼 선글라스, 만년필, 반지, 시계 등이 쏟아져 나오으로써, 중년 남성과 어린 여자와의 불륜에서 암묵적 거래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소희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후, 중년 남자 조동일은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까 두려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왔을 때도 완강히 부인하다, 불륜을 목격한 자들이 진술하게 되자 하지도 않은 살인까지 시인해 버리고 만다.

억울한 사형수 조동일과 살인자 양인숙은 대비되는 이미지로 각인된다. 조동일은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형당한 아버지이고, 양인숙은 임신한 소희의 국부까지 도려낸 잔인한 악마이다. 김성종의 이전 소설에서 억울하게 누명 쓴 동정적 범죄자가 등장하던 것과는 다른 범죄자의 유형이다. 그러나 양인숙은 딸 미혜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할 잔인한 악마일 뿐인가. 딸 미혜는 아버지의 불륜은 용서하고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당시 ‘불륜’은 『나는 살고 싶다』(1981)와 같은 추리소설에서 종종 살인의 동기가 되었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동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랑의 강』에서는 여성의 살인 동기인 남편의 ‘불륜’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조동일은 48과 20대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파렴치한 불륜남에 불과하다. 법정에서조차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대해서는 딸 미혜

조차도 공감하지 않는다. 가정을 파탄 낸 자는 남편이자 아빠인 조동일이지만, 아내 양인숙이 오히려 가장을 죽인 가정파탄자이자 독부로 묘사된다. 양인숙이 악마로 규정된다면, 조동일은 아내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가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가장의 모습이다. 조동일은 소회가 살해된 사건이 기사에 나도 지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지도 않는 유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이다. 자신의 불륜을 아내에게 숨기고, 법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소회를 사랑한다고 증언하고, 아내에게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동일은 불륜 순간에도 멋진 중년 남성의 이미지로, 법정에서도 죄를 뉘우치기보다 사랑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며 마지막에는 죄를 항변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까뮈의 피르소 이미지로 그려진다. 딸 미혜를 비롯한 대중의 분노는 여성인 양인숙에게 향한다.

『부랑의 강』은 억울한 사형수와 뒤늦게 확인된 진범의 서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을 불합리하고 성급한 사형 판결이나 재판부의 오판과 사건 조작에 두지 않고, 남편에게 누명 씌운 여성인 ‘아내’에게 쏠리게 한다. 1979년 사형된 오휘웅은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연녀의 증언 하나로 오휘웅은 일가족 살인자가 되었다. 만약 그가 억울한 사형수라면 그 책임은 사법부와 국가에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부랑의 강』에서 조동일의 억울한 누명과 사형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가 아닌 ‘잔인한 살인마’인 아내 양인숙에게 묻는다. 사건 조작도 수사당국이나 사법부가 아닌 여성 살인마 ‘개인’이 감행한 것이다. 1979년에서 1980년 신군부로 넘어가던 시기 김성중 추리소설은 〈수사반장〉에서 형사가 범인을 검거하여 법적 처벌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과 달리, 남성 독자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듯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처벌’을 엿볼 수 있다.<sup>15)</sup> 『부랑의 강』에서 남편에게 살인죄

15) 정혜영은 『부랑의 강』이나 『화요일 밤의 여자』 등에서 살인하는 여성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여 살인이라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 본다.

를 씌우고 사형을 당하게 한 아내의 이미지는, 실제 사건사례에서 억울한 사형수 오회웅의 죽음이 내연녀 여성 탓인 것처럼 몰아갈 수도 있다. 1970년대 초반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비관의 화살은 사법제도의 불합리함과 모순이었다. 그러나 1979년 『부랑의 강』 이후에는 사건을 조작한 이도 ‘범죄자 개인’이며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이도 ‘범죄자 개인’이다. 범죄자도 잔인하고 악랄해지며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각도 없어진다. 아내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가장 조동일은, 1980년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연쇄살인범’으로 부활한다.

### 3. 연쇄살인의 등장과 남성의 복수전: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 『나는 살고 싶다』(1981)

1980년은 전두환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이다.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1980년부터 ‘연쇄살인범’이 등장한다. 1975년 김대두 사건과 1979년 미국의 테드 번디 사건이 터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에 떨었다. 미국의 연쇄살인범이 뚜렷한 동기가 없는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것, 살인 유전자를 가진 정신질환자라는 것과 달리, 한국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은 뚜렷한 동기가 있으며,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하거나 쫓기다가 살인자가 된 경우이다. 김대두는 배가 고파서 돈 2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집에는 노모와 아이들이 굶고 있었다. 1980년과

---

(정혜영, 「1970년대 한국범죄소설과 살인하는 여성들」, 『현대소설연구』 98, 2025.6, 177면) 그러나 『부랑의 강』이나 『화요일 밤의 여자』 등의 작가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남편을 배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대가를 보여주는 남성의 욕망이 충족된 판타지 혹은 집의 그림처럼 있던 아내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괴물’로 보이는 공포와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981년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연쇄살인범은 생존형이나 노동자 계층의 사 이코패스가 아니라 치정에 얽힌 ‘중산층 가장’이다.

### 1) 강간에 대한 사적 복수-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

『부랑의 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강간과 불륜이다. 조동일의 딸 미혜가 당했던 사건은 강간범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가해지지 않고 심지어 미혜는 강간범을 추적하지도 않는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아내가 저지른 살인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하게 묘사되어 불륜을 저지른 남편 대신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한 아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와 『나는 살고 싶다』(1981)는 『부랑의 강』에서의 강간과 불륜을 각각 살인의 동기로 평범한 시민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미혜의 강간을 문제 삼지 않았던 약혼자 최명오와 아내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조동일이 다시 들고 일어서서 펼치는 남성들의 복수전이다. 남성들의 복수전은 ‘살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아내의 강간이나 불륜에 대한 복수이다. 남성들은 『부랑의 강』에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힘없는 가장에서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부랑의 강』(1979), 『백색인간』(1981),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에서는 모두 강간 사건이 나온다. 『부랑의 강』에서 조미혜와 그녀의 약혼자 최명오가 문제 삼지 않았던 강간은 『일곱개의 장미송이』에서 ‘연쇄살인’의 동기가 된다. 두 작품에서의 차이는 조미혜는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미혼 상태이고, 『일곱개의 장미송이』의 피해자 윤청미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임신한 상태이다. 김성중 소설에서 남자의 강간은 보통 법적 처벌을 피해 가나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를 강간한 자에게는 남편이 직접 살인으로 응징한다.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에서 최구는 약학대학을 나와 제약회사에서

10년째 근무하다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했으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착실한 남편이었다. 외박 한 번 하지 않던 아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곱 명의 남자에게 강간당한 뒤 강변도로에서 순찰차에 발견된다. 『일곱개의 장미송이』는 제약회사에 다니며 아내의 의상실 옆에 약국을 차리고 싶었던 평범한 시민 최구가 아내의 강간범 7명에게 차례대로 복수하는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16)</sup>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1978)에서 애인이 당한 강간에 대한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인물이 나온다. 미키 스펀레이의 『심판은 내가 한다』는 1962년부터 국내에 번역되어 1978, 1980,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법이 사회악을 처벌하지 않자 직접 응징을 가하는 하드보일드이다. 『일곱개의 장미송이』에서 최구의 아내 윤청미를 강간한 이들은 가정과피범에다가 한 명이 아닌 조직으로 움직이는 집단 강간범이라는 점에서 더 끔찍함을 불어온다.<sup>17)</sup> 1975년 한국의 김대두 사건과 1979년 검거된 미국의 테드 번디 사건은 연쇄살인에 대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미국은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와 함께 프로파일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sup>18)</sup> 그러나 프로파일러와 같은 전문 직업이 없고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는 커진 국내는,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에서 어떻게든 살인범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증거조작이나 증인조작으로 범인을 만들어 억울한 사형

16) 최구는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응징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저는 경찰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법으로는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요.”(『일곱개의 장미송이』, 남도, 1980, 28면)

17) 작품 내에서 강력계 형사 조상범은 “요즘 들어 강간사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강간사건이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인데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강간사건이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인데…… 최근에 일어난 것은 조직적으로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자행한 것이 대부분이죠. 잡아야 할 텐데……”(『일곱개의 장미송이』, 남도, 1980, 109면)

18) 드라마 〈시그널〉(2016)에서 이제훈이 맡았던 프로파일러는 2000년대 이후에나 국내에 들어왔다. 연쇄살인이 일어나던 당시 프로파일러가 없었고 핏방울 하나만 있어도 DNA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과학수사가 없어서 미제사건이 된 과거에 대한 응어리를 풀어주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되었다.

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sup>19)</sup>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평범한 시민이 연쇄살인 범이 되는 이유는 법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안정한 가정이 파괴된 데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안정된 삶,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는 욕구는 아파 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이 급부상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었고, 남성들에게 안정된 가정이란 ‘아내’와 ‘자식’이 필요충분조건처럼 구비되어 있는 이석의 노래에서처럼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임신한 아내를 강간한 것이다.

『부랑의 강』(1979)에서 미해를 강간한 자들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김성중의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파헤친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평범했던 남편이 직접 복수를 감행하기 시작한다. 강간 사건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경찰이 수사를 펼치기 시작한 것은, 윤청미가 임신한 기혼자이며 남성의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족 이데올로기’와 함께 가부장적 남성성을 부여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가장 많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어린 학생이거나 20대 여성이었다.<sup>20)</sup> 그러나 어느 순간 가정이 있는 부녀자 납치와 강간이 벌어져서 가정이 파괴되자 강간범도 사형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엄벌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시작한다.<sup>21)</sup> 『일곱개의 장미

19) 영화 〈보통사람〉은 김대두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진행·정리 남은주 기자, 「김대두, 그는 정말 연쇄살인범이었을까 표창원 의원과 〈보통 사람〉 김봉한 감독의 대화」, 『한겨레』, 2017.4.8.11:16) 연쇄살인은 아니지만 1974년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1979년 사형된 오휘웅도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무고를 주장했다. (강선에 기자, 「〈꼬꼬부 편리부〉 사형 집행했는데 범인이 아니다? ... 사형수 오휘웅 50년의 절규」, 『SBSNEWS』, 2025.7.11. 14:46) 김성중의 『부랑의 강』은 오휘웅 사건의 모티프를 가져온 것인가 할 정도로 흡사한 측면이 있다.

20) 강간 피해자는 20세 초반까지가 대부분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중고등학교생인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인섭,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2호, 1991. 여름, 241-242면) 그러나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 경우는, 가정이 있는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였다. 이에 대해서는 강간범이라는 죄명보다 ‘가정파괴범’이라는 죄명을 앞세워 엄벌에 처했다.

21) 1980년대까지도 수많은 강간 사건이 묻혔지만, 가정을 파괴한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까

송이』에서 강간 사건에 대한 남편의 ‘연쇄살인’이라는 자극적 설정을 한 것은, 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남성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가정과괴범’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3년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형에 처해진 강간 사건의 경우, ‘가정과괴범’이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가 달려 있다. 1984년 4월에서 7월 정부는 ‘가정과괴범’ 집중 단속을 벌여 강도강간, 강간살인 등 흉악범 14명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여명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sup>22)</sup> 『일곱개의 장미송이』에서는 ‘가정과괴’ 강간 범죄에 대중적 자극을 가하기 위해 연쇄살인, 집단 강간, 강간 당시 임신 상태의 아내, 임신한 아내의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한다.

최구가 일곱 명의 강간범을 추적하여 나가는 배경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울 중산층 중년 도시문화의 중심이다. 최구가 살인 1호를 추적하기 위해 찾아간 맞춤형복점(신미양복점)에서부터 살인 1호의 유물인 수첩에 적힌 다방, 당구장, 호텔, 치과, 살롱, 나이트클럽, 사진관 등은 모두 서울 중산층이 누리던 공간이다. 맞춤형복점이나 치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흥업소이다. 맞춤형복점에서 추적의 접선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1970년대와 1980년 당시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들다.<sup>23)</sup> 맞춤형복은 1982년 전두환 정권의 교복 자율화로 기성복이 들어오기 전 부유한 중산층 사

지 구형될 정도로 지금보다 강력하게 엄벌에 처했다.(윤주현 기자, 「범죄 억지력 높이자 사형 집행 논란 1983년 부녀자 30명 성폭행 가정과괴범 황인규 일당 살인 안했지만 사형... 이후 흉악범죄 눈에 띄게 감소」, 『조선일보』, 2012.9.7.3:01.32.)

22) 윤주현 기자, 「범죄 억지력 높이자 사형 집행 논란 1983년 부녀자 30명 성폭행 가정과괴범 황인규 일당 살인 안했지만 사형... 이후 흉악범죄 눈에 띄게 감소」, 『조선일보』, 2012.9.7.3:01.32.

23) 박소연 기자, 「'80년대 유행의 부활' 맞춤 구두·양복 전성시대」, 『아시아경제』, 2012.8.13. 10:08; 주영민 기자, 「(1일 현장체험) 맞춤형복 재봉사」, 『경기일보』, 2018.1.4. 20:57. 이들 기사에서 1982년 기성복이 등장하기 전까지 맞춤형복점이 성황을 누렸다고 한다. 기성복이 시장을 점령한 1980년대 후반까지도 맞춤형복은 인기를 누렸다. 1979년 양복산업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얻고, 1980년 맞춤형복 기능대회 1등을 한 김태식 양복점과 1979년 대한복장기술협회 중앙위원을 시작으로 55년 맞춤형복 외길 인생을 걸어온 류동선 명인에 이르기까지 『일곱개의 장미송이』의 배경으로 나오는 맞춤형복점은 1980년대만 해도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

이에서 성향을 누렸고, 1980년대 후반 기성복이 시장을 잠식하기 전까지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범죄자들이 형사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닌 곳 역시 호텔, 다방, 나이트클럽과 같은 장소들이다. 다방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추리소설에서도 만남이나 접선의 장소로 등장했지만, 호텔과 살롱, 나이트클럽은 1970년대를 넘어 1980년대로 오면서 추리소설의 범죄와 추적의 장소로 빠짐없이 등장하곤 했다. 『부랑의 강』에서처럼 호텔은 불륜과 쾌락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범죄의 장소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아파트 역시 중산층의 안정된 가정과 욕망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범죄와 살인이 자행되는 현장이다. 윤미숙은 그녀의 아파트 509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 윤미숙은 강간범들이 살해한 것이었지만, 경찰은 최구가 살인한 것으로 오인하여 추적한다. 오병암 형사가 최구가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이, 수사당국은 이미 다른 이를 범인으로 잡아 놓고 있었다. 최구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현재 벌어진 사건의 살인범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어서 수사당국은 다른 누군가를 연쇄살인범으로 몰아 억울한 사형수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고 말고, 그의 행동도 이해하고 있어. 그렇지만 어떤 이유라도 인간은 인간을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럴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 최구는 아내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유로서 너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것은 다음 문제야. 그는 죄인이야. 사람을 여섯이나 죽인 흉악범이야.”(『일곱개의 장미송이』, 남도, 1980, 291면)

범인을 동정하던 오병호 형사와는 달리, 오병암 형사는 살인에 대한 동기와 살인 행위를 구별하여 최구가 처벌받을 살인 범죄자임을 강조한다. 범죄자를 동정하던 오병호 형사는 사라지고, 대신 범인을 잡아서 법적 처

벌을 받게 하는 형사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러나 오병암 형사의 끈질긴 추적에도 최구는 일부러 범행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일곱 번째 살인을 모두 완수한다. 경찰은 최구의 뒤를 계속 쫓았지만 결국 연쇄 살인을 막지 못해 뒤의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최구가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마지막 희생자인 조직의 우두머리 지강표는 최구에 의해,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지강표에 의해 살해된다. 마지막 장면은 사범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범인보다 한발 늦어 일곱 번째의 연쇄살인을 막지 못한 오병암 형사는 최구를 사살할 수 있었는데도 쏘지 않고,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의 재회가 다시 죽음으로 끝난 최구를 동정한다. 최구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유혹자가 자신의 아이(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아내와 임신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가장으로서의 열등감은, 아내의 복수를 위한 일곱 명의 살인에 대한 완성과 옥화의 임신으로 다시 회복된다.<sup>24)</sup> 최구가 사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간 것은, 사회정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최구는 아내를 강간한 일곱 명을 모두 살인하여 복수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 2) 아내의 불륜에 대한 사적 복수 - 『나는 살고 싶다』(1981)

『나는 살고 싶다』(1981)는 『부랑의 강』(1979)과 짝패를 이루는 작품이다. 『부랑의 강』에서 살인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한 남편이 부활한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다. 『부랑의 강』(1979)에서 조동일이 본 영화 수잔 헤이워드 주연의 〈나는 살고 싶다〉는 국내에 1964년 개봉되어, 1972년(TBC), 1986년(MBC), 1998년(KBS1)까지 지속적으로 TV에서 주말의 명화로 방영되어 인기를 누렸다. 〈나는 살고 싶다〉에서 역올하게 누명 쓴 이는 여성인 수잔 헤이워드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제

24) 안혜연, 「김성중 추리소설에 나타난 남성성의 균열과 재건-『제5열』과 『일곱개의 장미송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89집, 2022, 75면.

목으로 활용하여 쓴 작품인 『나는 살고 싶다』(1981)는 불륜한 아내를 죽이려 하다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쫓기는 남편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가 삽입된 『부랑의 강』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형당한 자는 남성인 남편이다. 『나는 살고 싶다』에서 아내의 불륜은 살인을 결심할 만큼 형사에게 이해를 불러올 만한 살인의 이유가 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추리소설에서 불륜이나 치정은 살인을 불러올 만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남성에게 이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불륜이나 치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사회적 처벌이 가해지거나 살인의 동기가 된다. 평범하고 소심했던 최태오는 아내의 불륜을 처벌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려 나섰다가 예기치 않게 살인범으로 몰리고 진범을 잡으려다 연쇄살인범이 된다.

예기치 않게 연쇄살인범이 된 최태오는 미국의 테드 번디와 같은 연쇄살인범이 명확한 살인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최태오는 감옥을 빠져나오기 위해 빨간 모자의 남자를 살해하고, 가발 상점 여성을 살해하고, 창녀촌의 포주를 살해한다. 『일곱개의 장미송이』에서 최구가 다른 이가 누명을 쓰려고 하자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던 것과 대비된다. 김성중 추리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부랑의 강』(1979), 『일곱개의 장미송이』(1980), 『나는 살고 싶다』(1981)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기인데도 범인이 점점 악랄해지고 양심이 사라지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구와 최태오는 둘 다 연쇄살인범이지만, 최태오는 관련 없는 인물까지 살인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등 최구보다 잔인해지면서 서서히 정신병적 범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1981)는 평범하고 소심했던 가정이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후에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태오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벌 딸과 결혼하여 출세했다고 할 만한 자이다. 그러나 군대에서 월남전에 다녀온 후 성적으로 불능이 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는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는 출세욕도 사라지고 아내가 자신의 성적 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지만, 가정만은 유지하고 싶었다. 『일곱개의 장미송이』와 『나는 살고 싶다』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의 계기는 ‘아내의 외박’으로부터 발생한다. 『나는 살고 싶다』의 첫 장 제목은 〈아내가 외박을 했다〉이다. 아내의 외박에는 이미 아내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장인이 사준 30평짜리 아파트는 아내가 이혼 요구와 함께 들어오지 않자 텅 비고 넓게 느껴진다. 아파트는 안정된 가정의 상징이었으므로 아내와 자식이 부차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성적 불능으로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던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된다. 안정된 가정이 아닌 이상 아파트는 그에게 의미가 없게 된다. 최태오는 아내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며 남들에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연쇄살인범이 된 남성들은 시골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하여 자신보다 더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출세한 자들이다. 성적 불능으로 출세욕마저 억압당한 최태오는 오로지 아내에 대한 열등감밖에 없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살인 동기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고개 숙인 남성, 찌질한 남자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도 그가 가장 분노한 부분은 자신의 성불능에 대한 증언이었다. 살인죄로 누명을 써서 사형을 언도받는 것보다,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살고 싶다』에서 연쇄살인의 발단은 최태오에게 아내를 살인했다는 누명으로 사형 판결이라는 ‘오판’이 내려진 것이다. “법이 오판을 내린 이상 법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탈옥을 감행하는 최태오는 억울한 사형수의 이미지를 굳히기보다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연쇄살인범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탈옥을 감행할 때 아내의 살인범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집사를 살해하고, 자신이 탈옥수라는 게 발각되자 살롱을 차리는 것이 꿈인 가발 상점의 처녀를 살해한다. 아파트에서 아내와는 되지 않던

성적 관계가 호텔에서 낯선 처녀와의 정사에서는 성공한다. 장인이 사준 아파트와 재벌 딸에 대한 시골 출신인 그의 열등감이 성적 불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태오가 살려준 이는 화자라는 사창가 여자뿐이다. 사창가는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번두리이고 숨기고 억압해야 할 장소이다. 포주를 칼로 찢어 죽이고 화자를 데리고 나온다. 신문에는 아내까지 포함하여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실리고 수사당국의 무능함에 대해 비난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마치 실제 신문 기사를 삼입한 것처럼 대중의 분노와 불신의 감정과 자극적 사건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최태오가 희대의 살인마가 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라 하며, 자기가 최태오 아내를 살해한 진범이라 밝히는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한다. 결국 수사당국의 무능함이 최태오의 억울한 누명도 벗기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징역을 언도하여 그가 연쇄살인범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 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반항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막다른 골목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와 함께 그 제목을 가져와 소설로까지 쓴 것은 당시 조작된 사건과 억울한 사형수들,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최태오는 자기와 무관한 힘없는 자들을 살해하면서 시대의 괴물이 되어간다. 나기룡과 동성에 관계였던 최태오 아내 살인범 한성수는 여장 남자로 그를 알고 있는 증인 최을숙을 청산가리로 독살한다.<sup>25)</sup> 최태오는 형사의 총에 맞아 즉사하여 사법 판결대에 서지 않는다. 잡혀서 법적 처벌을 받는

25) 최태오가 망치로 내려치거나 칼로 찢거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면, 여장 남자이지만 한성수는 청산가리로 독살한다. 한성수는 남자이고 최을숙은 여성인데도 여장 남자이고 동성애자인 그는 여성의 살해 방법인 청산가리를 택한다. 청산가리 독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여성의 살해 방법으로 현재훈 소설에서도 종종 모티프로 활용되었다. (『절벽』 작품집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살해 방법은 청산가리이다.)

이는 나기룡과 동성애적 관계로 얽혀 있던 여장 남자 한성수이다. 한성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설 수 없는 찌질한 남성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처벌받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조국 근대화’에 따른 도시개발과 산업발전은 ‘범죄’와 함께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피해자는 점점 숨는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낸다. 그 자구책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와 타협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하고 부패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1979년을 거치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남성들은 ‘나’도 아파트에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호텔에서 때로 쾌락을 즐기며 나름 ‘중산층 신사’로 살고자 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법과 집 밖으로 나가는 아내들은 그들을 연쇄살인범이 되도록 한다. 김성중 추리소설의 연쇄살인범이 모두 ‘중산층 가장’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국가 이데올로기와 추리소설에서 대충이 분노하는 지점이 겹치는 순간은, 바로 ‘안정된 가정’이 파괴될 때이다. 『나는 살고 싶다』는 소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남성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과 1980년 당시 베트남전의 트라우마를 불륜한 아내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표출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은 국가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남성 가부장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남성성이란 폭력, 살인, 강간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들에게 가정이란 곧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히는 ‘남성성’을 자각하는 곳이었음을 말해준다.

#### 4. 정신병적 범죄 소유자와 욕망의 여성 인물 탄생 『백색인간』 (1981)

1970년대와 1980년대 법적 처벌보다 두려워했던 것은 사회적 처벌과

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색인간』에서 사회적 처벌은 정신병자와 낙태한 여성에게 가해진다. 법과 별개로 국가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일종의 ‘사회정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색인간』은 정신병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부정한 여성을 사회병리 현상을 낳는 가정과탄자로 분류하여 사회적 처벌을 가한다. 연쇄살인범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우연히 휘말린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 유전자의 소유자로 형상화되고, 문란한 여성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면 안 되고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했다.

### 1) 하마태 형사의 추적과 서남표의 법적 처벌 문제

1980년 신군부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거리의 부랑아, 불량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 율락업소 여성 등을 잡아서 삼청교육대나 정신병원에 강제수용시킨다.<sup>26)</sup> 신군부 정권의 사회정화 운동의 대상은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잠재적 범죄자’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잠재적 범죄자에는 대표적으로 정신병자들이 포함된다. 엄밀히 말하면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실제로 일으켜서 수용한 경우보다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라는 허울을 씌워서 강제 입원시키는 구실로 작용한다. ‘정신병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시선과 처벌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백색인간』의 서남표는 8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출소한 이력이 있다. 『백색인간』에서 서남표가 연쇄살인을 하는 이유는, 그가 정신병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종의 『백색인간』은 〈베스트셀러극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1983년

26) 김아람, 「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사회와 역사』 제129집, 2021.3, 154-155면.  
〈1980년대 ‘사회악’ 범주의 확대와 ‘율락가’ 정화〉 장 참조.

11월 6일 방송된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고석만이 연출을 맡게 된 〈수사반장〉은 그 이전까지의 범죄자의 동정이나 연민을 담아내던 인정극에서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자가 판치는 사회극으로 방향을 선회한다.<sup>27)</sup> 1980년부터의 범죄자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울 정도로 잔인하여 동정의 여지가 없다. 이유 없는 살인에 죄책감이 없는 연쇄살인범은 독자에게 사법체계의 불신보다 범죄자 개인에 치를 떨게 하며, 범죄자가 검거되어 사형에 가해지기를 바라게 한다. 『백색인간』은 1979년 사형이 선고된 미국 최대 연쇄살인범인 테드 번디 이후로 전 세계에 퍼진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닌 정신병적 유전 인자를 내포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작품이다. 더불어 〈수사반장〉으로 쏘아 올려진 발로 뛰는 ‘형사들’의 추적과 검거 과정을 보여주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하마태 형사와 드럼통 형사는 콤비를 이루어 1차, 2차의 살인 사건이 미제 ‘잭나이프’ 범행도구를 사용한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한다. 『일곱 개의 장미송이』(1980)와 『나는 살고 싶다』(1981)에서 형사는 늘 범인보다 한발 늦어 마지막 희생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세우지 못하거나 한다. 연쇄살인범은 아니더라도 잔인하게 임신한 여대생을 살인한 『부랑의 강』에서는 조동일의 누명을 벗기지도 못하고 사형이 집행된 뒤에야 진범이 밝혀지는 최악의 경우를 맞는다. 그렇게 독자에게 무능하게 보이는 형사들은 그들의 위상을 회복하기라도 하듯, 『백색인간』에서 용의자의 필적을 하나하나 감정하고, 호텔에 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잭나이프의 행방을 위해 미국 FBI와 수사공조도 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기 위해 부산, 경기도 용인 정신병원 등 쉬지 않고 추적한다. 1, 2차 살인이 동일범의 소행인 연쇄살인이라는 보고에 바로

27)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3.8, 84면.

긴급수사회의를 여는 등 불독을 필두로 한 수사당국은 『일곱개의 장미송이』나 『나는 살고 싶다』에서 미적지근한 추적 과정과도 한 차원 진화된 모습이다. 하마태나 드림통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자와 완전히 감정적으로 결별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작품에서 아내의 강간 범에 대한 복수나 아내의 불륜에 대한 복수라는 범죄자의 살인 동기에 남성으로서 감정이입한 것이, 단 한 번의 살인도 막지 못하고 법정에서 세워 사회정화의 본보기로 삼지 못한 이유였다.

그러나 하마태 형사는 최동오가 진범 서남표의 계약에 빠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이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 흥남미가 용의선상에 오르기 전이라 3차 주창기의 살인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살인 누명을 쓴 최동오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동오를 용의자로 연행하여 살인자로 단정 짓고 사형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은, 1980년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거, 법원의 성급한 판결 등의 민낯을 보여준다. 형사들은 똥보라는 점 이외에 목격자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최동오를 연행해 간다.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공포감을 조성하여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미 범죄자로 취급한다. 서남표가 최동오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작정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1970년대 수사당국의 사건 조작을 경험했던 대중이 역으로 악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현재훈 소설에서도 당시 범죄자의 복수가 종종 살인죄를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감행된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사법제도의 불신은, 대중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빠져나가 기만 하면 살인을 해도 무방하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억울한 사형수나 무고한 이들의 분노는 수사당국이나 사법제도가 아닌 ‘범죄자 개인’에게 향하게 된다.

하마태 형사와 드림통의 끈질긴 추적은 서남표가 진범이라는 것을 밝히고 최동오의 누명을 벗겨준다. 형사들의 서남표를 잡기 위한 고군분투는 흥남미가 서남표로부터 목숨을 구하려는 고군분투와 대결하게 된다.

제3차 주창기의 살인은 형사들이 홍난미보다 한발 늦었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난미는 이미 서남표가 진범임을 알고 있으며 최동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까지 간파한다. 홍난미는 사설 조사기관에 의뢰한 정보에 의해 서남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과 범행도구인 잭나이프가 서남표가 원래 계모를 살해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알게 된다. 하마태 형사는 열심히 잭나이프의 행방을 쫓고 서남표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을 찾아가지만 이미 홍난미가 다녀간 뒤였다. 홍난미의 뒤를 쫓아다니며 수사하는 형국이어서 독자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홍난미에게 드림통 형사가 쏟아놓는 비난은 홍난미라는 여성의 욕망에 대한 혐오도 있지만, 수사당국이 홍난미보다 한발 늦은 것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일 수 있다.

“최동오는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사형수로 감옥에 있어요. 우동철도, 김화실도 그리고 당신 이종사촌 오빠인 주창기도 모두 당신 때문에 살해되었단 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비밀이 탄로 날까 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어! 왕희장과의 결혼이 그리 중요했소? 그렇게도 재벌 부인이 되고 싶었소! 당신이 일찍 경찰에 신고만 했더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밝혀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영 입을 다물었을 테지. 안 그래요?”(『백색인간』 2권, 남도, 1981, 234면)

김성중의 『백색인간』(1981)에서 서남표는 정신병원 환자이며 연쇄살인범이다. 『최후의 증인』(1975)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황태영에게 정신병자라는 것은 독자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1971), 「황홀한 실종」(1976), 「조만득씨」(1980) 등은 모두 정신병원 환자를 다룬다.<sup>28)</sup>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

외된 자들이다. 그러나 서남표의 정신병적 이력은 살인을 저지를만한 유전자를 가진 연쇄살인범의 조건이자 낙인으로 기능한다. 불량배, 불량아, 정신병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정신병원이나 삼청교육대에 감금시키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중에게 법적 범죄자보다 사회적 시선의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는 것은 끔찍한 현실이고 삶이 아닌 죽음일 수밖에 없었다. ‘정신병자는 범죄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혹은 ‘연쇄살인범은 정신병자다’라는 낙인효과는 살인자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남표의 정신병적 이력을 찾기 위해 흥남미와 하마태 형사 일행은 직접 정신병원으로 간다. 서남표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으로 나오는데, 실상 작품이 끝날 때까지 서남표가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여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순간은 포착되지 않는다. 손을 자주 씻는 강박증과 여성혐오가 있다는 것인데, 강박증과 정신분열증은 다르다. 정신분열증이라면 다른 인격체가 되는 서남표의 모습이 그려져야 하는데 작품 내에서 강조된 것은, 서남표의 개인적 가족사이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가 모두 자살해서 유전적으로 ‘광기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서남표의 정신병적 소인을 설명하는 전부였다. 연쇄살인범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과 의사 소견의 삽입이나, 이유 없는 살인에 정신 감정을 받아 보고 정신병자이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의 권유 등은, 정신병은 유전적으로 전해지며, 정신병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감염시킨다. 그 두 사람과 아무 연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최동오를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갈 때도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몰라도 죽일 수는 있지. 요새는 **이유 없는 살인**도 비밀비재하니까. 아무 관계도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어이없는 일이지. **정신**

28)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호, 2019, 273-311면 참조.

병자가 아니고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겠지. 자네도 정신 감정을 한 번 검사받아 볼 필요가 있을 거야. 이상이 있으면 자네는 교도소에 가는 대신 정신병원에 수용되겠지. 정신병자한테는 형 집행을 할 수 없어.”(2권, 1981, 51면)

『백색인간』에서 범죄자는 서남표뿐만 아니라 부패한 변호사 황충기, 강간살인죄 재벌 2세 박헌과 부녀자 강간과 절도의 박헌의 하수인들 등으로 많다. 박헌은 살인하지만 앓았다면 강간은 여자들이 고소하지 못해서 묻혔을 거라 한다. 김성중 초기소설에서부터 작품 곳곳에서 수많은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도 강간죄로 처벌당한 자는 없다. 살인죄가 되어야만 강력범죄 혹은 특수강간죄로 조사가 진행될 뿐이었다. 김성중은 『백색인간』에서 서남표의 범죄와는 상관없는 박헌의 강간살인과 하수인 두 명의 부녀자 강간과 절도 사건 등의 범죄들을 삽입한다. 서남표의 복수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살인했는데도 무죄 방면해주는 변호사 황충기와 재벌 2세와 사법부와의 결탁 등 당시 법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최동오는 대법원까지 심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성급할 정도로 빠르게 사형을 선고하여 대비되는 효과를 낳는다. 김성중 단편들과 『최후의 증인』에서 범죄자는 힘이 없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면, 『백색인간』의 박헌이란 자는 여자를 유린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자이나 법적으로는 무죄방면 된다. 변호사, 브로커, 재벌,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살인을 무죄로 둔갑시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며 법을 악용하기에 이른다.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짜 범죄자는 범망을 피해 나가고, 하수인들이나 더 힘이 없는 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줄지에 살인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는 오히려 큰소리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박헌이 치욕스러운 것은, 그의 성적 불능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남표에 대해서는 ‘정신병자’, 박헌에 대해서는 ‘정불능자’라는 것을 그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크게 각인되도록 한다. 사형이 선고되어야 할 서남표는 법정에 서지도 못한 채 흥남미의 칼에 찔려 죽는다. 흥남미는 서남표의 총에 맞아 죽는다. 결국 검거해서 법정에 세워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형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건은 그들이 비난했던 흥남미의 목숨을 대가로 치름으로써 종결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살아남은 자들은 부패에 맞서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 부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을 불리거나 법망을 피한 자들이다. 서남표, 박헌을 비롯한 진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억울하게 최동오나 하수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형국이 바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실태였다. 김성중 추리소설에서 수사당국과 형사가 늘 범죄자보다 한발 늦고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텔레비전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형사가 수사하여 범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의 청산과 계몽이라는 ‘규율과 통제’를 대중에게 각인<sup>29)</sup>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김성중은 법과 수사당국이 잡아야 할 범죄자보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용의자를 이미 범인으로 낙인찍기에 더 열심이었고, 권력을 쥔 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살인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김

29) 이영미, 「1970년대 방송 드라마의 위상과 법에 대한 태도」,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436면, 448면 참조;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3.8, 71면 참조. 송치혁은 〈수사반장〉의 기본 구조가 ‘수사, 검거, 법적 처벌’로 되어 있다고 하며, 마지막 장면에서 범죄자의 체포와 함께 재판의 결과를 삽입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고 한다. 이러한 법적 처벌로 결론을 맺는 것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성중 추리소설의 살인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자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는 결말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김성중의 소극적 항변이라 볼 수 있다. 김성중 추리소설은 신군부 정권에서 이전 소설에서 보여주던 동정적 범죄자에서 악랄한 범죄자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와 수사당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정신병자 연쇄살인범과 자신의 욕망을 ‘감히’ 드러내는 새로운 여성 인물로 돌린다.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되고 언론이 통제되고 정부의 눈을 피하기가 어렵던 시절, 김성중은 〈수사반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 독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다. 1983년 〈백색인간〉은 제1회 MBC 베스트셀러극장으로 각 가정의 안방에서 방영된다.

## 2) 범죄의 이중적 잣대와 사회적 처벌 - ‘낙태한 여성은 파혼당해 마땅하다’

김성중의 1970년대 단편소설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몰랐던 공간 피해자들은 1979년 이후 198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 자기 몸을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화해서 가치를 매기는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바뀌게 된다. 남성에 의해 소비되는 여성의 몸이기도 하지만,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는 모성을 제거한 여성은 그동안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던 여성 범죄자와도 구분된다.<sup>30)</sup> 새로운 여성 인물 유형의 탄생이나 여성 인물의 변모 역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부랑의 강』(1979)에서 임신한 소회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는 양인숙이

30) 정혜영, 「새로운 여성 범죄자의 등장과 일탈하는 여성들-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논총』 제35집, 2025.6, 195-223면.

다. 『백색인간』(1981)에서 서남표의 아이를 낙태한 이는 흥난미이다. 반면, 서남표는 아이를 지키려고 했으며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흥난미와 산부인과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한다. 김성중은 아이를 살해하거나 아무런 감정 없이 낙태한 이를 여성으로,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이를 남성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신군부 정권의 사회정화 운동의 대상에 여성이 전면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윤락업이나 유흥업소의 단속은 부정한 여성(불륜을 포함하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sup>31)</sup>

『백색인간』에서 서남표의 살인 동기는 흥난미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자신과 동의 없이 여성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낙태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그것도 아들을 말이다. 모든 사회적 비난은 흥난미에게 돌아간다. 속표지의 홍보문구에서도 “신데렐라의 꿈을 쫓는 끈질긴 집념의 흥난미는 애인과의 사이에 잉태한 태아를 지워버리고 애인마저 마치 헌신짝처럼 차버린다. 그녀에게 버림받고 이름도 없는 아기를 부르며 울부짖던 서남표! 복수의 일념으로 이상심리에 잠겨 ‘백색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내세우며 독자가 작품을 읽기도 전에 이미 서남표의 복수에 감정이입하여 흥난미가 과멸하기를 바라게 한다.

흥난미는 부산 송정의 가난한 어부의 장녀이다. 여섯 딸 중에 유일하게 서울로 대학을 가서 집안의 보탬이자 자랑거리이다. 집에서 대학 학비를 비롯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학비에서부터 서울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서울로 대학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지만, 나체 모델에서부터 자신의 처녀를 내어 주고 그 남자에게 미술을 배워 대학에 간다. 대학에 가서 입주 가정교사를 하여 학비를 충당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가정교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그 집

31) 김아람, 「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사회와 역사』 129집, 2021.3, 154-157면 참조.

아저씨와 성적 거래를 하고, 이후에도 살롱, 유흥업소 등에서 서울 생활에 필요한 풍족한 돈을 벌며 살아간다. 흥난미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대학에 가고 생활비를 벌고 하는 것은, 남성 독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러나 과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식모(「소년의 꿈」), 공장의 직공, 유흥업소 종사자(『백색인간』), 그도 아니면 창녀촌(「소년의 꿈」, 「어느 창녀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흥난미는 1980년대 도시의 유흥과 쾌락과 욕망이 불빛들만큼이나 화려하게 반짝거리던 시기, 남들처럼 잘살고 싶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출세 욕망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몸이 지닌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자이다. 그녀의 욕망은 평범한 것으로, 시골에서 올라와 재벌 딸과 결혼하여 회사의 전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로 돈방석에 올라앉아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성들 역시 가지고 있었다. 재벌 딸과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과 사기와 사랑을 팔았던 남성들 대신, 흥난미는 재벌인 왕회장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하고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기까지 한다. 『백색인간』(1981)은 힘없는 피해자인 그녀가 출세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윤리의식이 왜곡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흥난미가 왜곡된 윤리의식과 범죄 감각을 가지게 된 연유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간당하고 버려지던 여성(「소년의 꿈」, 「습지식물」)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 유형이다. 흥난미는 자신이 하는 욕망에 따른 행위들에 그 어떤 죄의식도 없다. 강간의 피해자에서 강간을 범죄로 신고하거나 범죄자를 벌하려는 인식이 아니라 강간을 오히려 이용하는 왜곡된 욕망의 구현자로 변모한 것이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육체를 황홀한 듯 바라보았다. 자신이 보기에 그 그녀의 육체는 아름다웠다. 이 육체와 미모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무기로 이용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는 것

이다.(『백색인간』 1권, 남도, 1981, 79면)

그런 일이 있고부터 그녀의 **모험심과 근성**은 그녀를 더욱 **비도덕적인 여자**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까지 비웃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경멸하게 되었다.(1권, 「사각의 정글」, 109면)

홍난미 캐릭터는 지금까지 여성 인물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육체를 유린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야망 때문에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하기도 하는 등의 ‘모험심과 근성’(110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험심과 근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흔드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그녀는 서남표와 동거하면서도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일류 회사의 심장부인 남방상사에 비서로 채용되기에 이른다. 홍난미의 모습은 자신의 성을 활용하여 남성의 돈을 받아쓰기 급급했던 여성 캐릭터들과 달리, 자신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시선은 홍난미에게 악마의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녀는 그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서남표보다 더 악랄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강간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낙태하고 왕회장과 결혼하려 한 홍난미에게 살인자보다 더한 ‘사회적 처벌’을 가한다. 홍난미에게 가해진 사회적 처벌은 몸이 더럽혀진 상태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남표가 홍난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것이다. 홍난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일까. 홍난미는 강간의 피해자이며 서남표로부터 협박을 받는 피해자이다. 그러나 욕망의 화신인 홍난미는 황회장과의 결혼을 방해하는 서남표를 죽일 결심을 하고 사촌오빠 주창기에게 서남표의 미행을 부탁한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고, 네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일 태야!”라고 발광하는 흥난미는 독자에게 피해자가 아닌 살인자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백색인간』의 홍보문구에는 “허욕의 노예인 미녀와 이상심리를 가진 청년! 그리고 명수사관이 벌이는 사각의 추리극!”이라고 달려 있다. 형사들이 흥난미에게 문제 삼는 것은, 살해된 주창기와의 관련 여부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 낙태이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낙태하고 왕회장과 결혼하려 하는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다.

서남표는 흥난미의 낙태 사실을 협박용으로 사용한다. “불러 보시지. 난 겁날 것 없으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너만 손해 아닐까?”(144면)라며 낙태를 여자에게 국한된 죄로 규정짓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활용한다. 「경찰관」에서 어부는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도 동정을 받는데, 흥난미는 3개월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감내하고 협박당해야 했다. “살인자……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가만 내버려둘 줄 알아? 언젠가는 너를 씹어 먹고 말 테다…… 넌 독부야…… 내 아들을 죽인 독부야……”(146면) 흥난미를 살인자에 이어 독부라는 프레임에 썩워 독자가 진짜 살인범이 서남표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한다. 『백색인간』에서 3개월된 태아를 낙태한 흥난미가 서남표보다 더 비난받는 것은, 낙태한 대상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이라는 표어와 함께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1)라는 표어를 내세울 정도로 강도 높게 산아제한을 시행할 때도 낙태 대상은 ‘딸들’이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구조절정책이 어렵게 되자 ‘딸 하나가 열 아들보다 낫다’라는 표어를 만들 정도였다. 『백색인간』의 중산층 가정을 상징하는 하마태 형사는 딸 하나를 둔 가정을 꾸리고 있다.<sup>32)</sup> 이에 대비하여 흥난미는 가난한 어부의 가족계획을 하지 않은 여섯 딸 중 장녀이다.

1984년이 되어서야 초음파로 태아를 감별할 수 있었으므로, 1981년 당

32) 『부랑의 강』에서 중산층 가정을 상징하는 조동일도 딸 미혜 하나만 있다. 딸 하나만 있는 가정을 이 시기에 중산층 가정의 상징으로 그려 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낙태한 이후에야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서남표가 아들에 집착해서, 흥난미를 ‘아들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은, 낙태를 둘러싼 모든 죄를 여성에게 묻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성중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추리소설은 평범한 시민이 연쇄살인범이 되고 힘없는 피해자였던 대중이 욕망의 화신의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군부 시절 ‘남성성’ 아래 묵인되었던 남성의 폭력과 강간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위태롭고 불안정한 가정을 지키는 수단처럼 통용되었다. 1980년대 초반 낙태는 사회적으로 묵인되었지만, 여성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낙태 대상은 아들이 아닌 딸에 국한되어야 했고, 아들을 낙태한다는 것은 ‘가정’의 지속이나 자신의 대를 끊는 것이므로 처벌받아야 마땅했던 것이다.

하마태와 드림통 형사는 흥난미의 과거를 듣고 그녀를 나쁜 여자로 추궁하고 비난한다. 감정이 격해진 드림통 형사는 우동철, 김화실, 주창기의 살인이 모두 그녀 때문이었다고 추궁하고 따진다. 더불어 비난의 화살도 서남표보다 그녀에게 돌아가도록 발언한다. “만일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당신이라는 여자를 찢어 죽일 거요!”(2권 234면)라고 하며 끝까지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에 치를 떨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서남표가 아닌 흥난미에게 묻는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서남표이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때문에 왕회장과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낙태 역시 그녀의 과거에 해당한다. 드림통 형사의 그녀에 대한 비난은, 다른 남성들을 거친 과거와 낙태한 이력이 있는데도 왕회장과 결혼하려 한다는 그녀의 욕망을 향한 것이다. 흥난미의 욕망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도 남성의 권위를 흔들기 때문에 사회적 분노를 불러온다.

서남표의 두 번째 살인 희생자인 김화실은 명동에서 마드무아젤 의상실을 운영한다. 그러나 뚜쟁이 오미자를 통해 성을 거래하는 고급 콜걸이

다. 강간살인 범죄 통계에서 여성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가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기록되어 있다.<sup>33)</sup> 형사들은 명동에 얼굴 반반한 애들은 거의 매음을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 대학생을 비롯해 어린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자들은 중산층 가장들이다. 김화실이 만나기로 했던 유창섭 역시 갓 마흔에 부동산으로 억대의 자산가가 되어, 아파트단지의 슈퍼마켓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자이다. 유창섭은 김화실의 죽음으로 형사의 심문을 받지만, 매음이 불법인데도 처벌받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탈세, 아파트단지, 주택재개발<sup>34)</sup> 등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울 중산층이 형성되던 과정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이 재개발되고 중산층 가정이 생겨나는 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던 지방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이 없던 자들의 왜곡된 욕망도 도사리고 있었다. 중산층 가장은 처벌받지 않고, 김화실은 질이 안 좋은 여자라며 죽은 이후에도 비난받았으며, 흥난미는 출세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작품이 끝날 때까지 무서운 여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마태 형사의 딸은 납치당하고도 강간당하지 않는다. 수많은 강간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어처구니없는 설정이지만 그래야만 유지될 수 있는 ‘가정’이었던 것이다. 하마태 형사는 자신의 딸이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범인을 공개 수배하는 것을 반대한다. 몸이 더럽혀진 딸이 결혼할 수 있겠냐는 것이 이유였다. 딸의 생사보다 딸에 대한 ‘사회적 처벌’

33) 강간범의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종사자(23%)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오나, 수사계관기록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유흥업소 종사자가 신고를 한 경우는 9%에 지나지 않았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해도 인정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최인섭,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2호, 1991년 여름, 242면) 살인이 벌어져야 경찰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34) 서남표가 하마태의 딸을 납치해서 감금한 장소는 살인사건이 난 폐가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도심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몸을 함부로 놀린 김화실이나 낙태한 흥난미가 죽어서 사회정화 기능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하마태의 딸은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강간당하지 않은 채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다. 1979년에서 1980년대 초반 국가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정의 권위가 결합한 강력한 남성 가부장들은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로 사법제도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백색인간』은 대중의 범죄 감각의 모순된 이중성에 대해서도 꼬집어 주고 있다. 흥난미라는 인물이 가지는 자신의 몸을 이용한 욕망은 과연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녀를 강간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당시 낙태가 불법이었지만 이에 대해 대중이 범죄라고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구 증가를 원치 않았던 시대에 암묵적으로 사회가 용인했기 때문이다.<sup>35)</sup> 흥난미가 서남표가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살인자라고 비난하자, 그것은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낙태가 불법이긴 했지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낙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보다 가혹한 사회적 처벌을 가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기혼 여성의 낙태는 가족계획의 일환이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낙태는 몸을 함부로 굴렸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35) 1950년대부터 유지되던 영아 살해법은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뒤에야 없어졌다. 그 정도로 영아 살해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잔악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형법 개정안 통과」, 『한국경제』, 2023.7.18.; 「영아살해 절반이 ‘집행유예’... 70년 전 감경사유 그대로 땀」, 『한겨레』, 2023.6.26.; 「한국은 아이를 부모 소유물로 생각... 이제 영아 인권 재정립...」, 『조선일보』, 2023.7.10.; 「끊이지 않는 영아 살해, 막을 방법은?」, 『MBC뉴스』, 2024.2.8. 2024년 2월 9일 영아살해죄가 아예 폐지되기에 이른다. 1970년대는 영아살해에 대해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병호 형사가 어부를 풀어 준 것도 바로 그런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1979년에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던 격변기의 김성중 추리소설은, 초기 단편소설과 『최후의 증인』에서의 동정적 범죄자가 사라지고 연쇄살인범과 욕망의 화신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랑의 강』에서 아내의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조동일은, 『일곱개의 장미송이』에서 아내를 강간한 강간범들을 끝까지 쫓아 복수하는 최구로, 『나는 살고 싶다』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단죄 하려다 살인 누명을 쓰고 탈옥하여 연쇄살인범이 되는 최태오로, 『백색인간』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낙태한 여자를 벌하기 위해 연쇄살인범이 되는 서남표로 등장한다. 이들은 각 작품에서 다른 인물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성이라는 면에서 공통된 면모를 지닌다. 그리고 조동일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거나 최구, 최태오, 서남표가 연쇄살인범이 된 것은 여성들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백색인간』은 1983년 MBC 베스트셀러극장 1회로 방영된다. 이때 드라마의 주된 캐릭터는 연쇄살인범 서남표가 아니라 과거를 감춘 흥난미이다. 왕희장과 결혼하려 한 흥난미의 과거(낙태했다는 사실)가 언제 발각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9년을 기점으로 1980, 1981년으로 가면서 김성중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은 더는 동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습지식물」, 「소년의 꿈」, 「경찰관」 등에서 무지했던 피해자들은, 『부랑의 강』이나 『백색인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영악하고 속물적인 인물 유형으로 바뀐다. 자신이 당한 것이 범죄인지조차 몰랐던 무지했던 인물들은, 『백색인간』에서 범죄인 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눈 감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범죄에 무뎠던 감각을 보여준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차피 법을 지켜봐야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겼다고 해도 모두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나도 이 정도 법쯤 어기고 이익을 챙겨야지 하는 대중의 왜곡된 범죄 감각을 낳게 된다.

1970년대 김성중이 줄곧 제기했던 불합리한 사법제도와 억울한 사형수라는 문제제기는 잔인한 연쇄살인범이나 배신과 욕망의 화신인 요부이자 악마인 여성의 이미지에 묻혀서 희석되고 만다. 그러나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정권 비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 시기, 사형이 집행된 뒤 밝혀진 진범, 법적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자살로 끝맺는 결론, 평범한 시민이 베트남전이나 군대의 트라우마로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 등은 그 시기 추리소설에서만 낼 수 있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수사드라마들이 범인을 검거해서 법적 처벌을 가하여 공권력을 강화했다면, 김성중 추리소설은 법적 처벌 대신 ‘자살’하거나 다른 이의 손에 죽는 설정을 함으로써, 당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와 법적 처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게 돌린 것은, 남성 독자를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랑이나 율락업소 단속’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에게 도전하는 ‘여성’을 사회정화 대상으로 범주화하여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1980년과 1981년 신군부 정권은 한편에서는 3S 정책으로 대중의 유흥과 오락을 풀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화라는 목적으로 감시와 규율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1980년에는 1970년대보다 더 잔인하게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와 남성성에 대한 압박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법제도의 불신은 위로부터의 성과주의 압박으로 사건 조작이 빈번했고, 부랑아, 불량배, 정신병자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나 정신병원으로 사라지는 힘없는 이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1979년에서 1981년의 김성중 추리소설은 법적 처벌을 가하는 대신 ‘정신병자는 잠재적 범 죄자’이고, 거리의 부랑아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며, ‘낙태한 여성은 파혼당해야 마땅하다’는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주며 사회적 처벌을 가하고 있었다. 대중문학은 통계수치가 보여주지 않는 잠재적 범죄자,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의 간극과 이중적 잣대, 낙태는 딸에 국한된다는 남아선호사상 등 대중 심리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김아람, 「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사회와 역사』 129집, 2021.3, 147-180면.
-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3.8.
- 안혜연, 「김성중 추리소설에 나타난 남성성의 균열과 재건-『제5열』과 『일곱개의 장미송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89집, 55-82면.
- 안혜연, 「2010년대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1980년대 재현 양상과 젠더정치-〈터널〉, 〈라이프 온 마스〉를 중심으로」, 『배달말』 73, 2023.12, 437-468면.
- 유혜숙, 「국가정책과 법이 양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생명의 복음』에 근거하여 한국의 가족계획정책과 모자보건법을 성찰하며」, 『신학전망』 196, 2017, 151-194면.
- 이동원, 「한국의 범죄 동향, 1970-2004: 공식 통계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권 1호, 2006.11, 217-252면.
- 이영미, 「1970년대 방송 드라마의 위상과 법에 대한 태도」,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421-467면.
- 정혜영, 「새로운 여성범죄자의 등장과 일탈하는 여성들-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논총』 제35집, 2025.6, 195-223면.
- 정혜영, 「1970년대 한국범죄소설과 살인하는 여성들」, 『현대소설연구』 제98집, 2025.6, 157-187면.
- 최애순, 「1945년 해방기부터 1950년대 전쟁기까지 방인근의 탐정소설」, 『현대소설연구』 78호, 2020.6, 317-363면.
- 최애순, 「1960년대 서스펜스 스타일의 유입과 신진 추리소설가의 등장- 허문녕, 천불란, 천세옥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9, 2023.3, 247-285면.
- 최애순, 「1970년대 동정적 범죄자와 법적 처벌 문제- 김성중의 단편소설과 장편 『최후의 증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8집, 2025.4, 37-72면.
- 최애영,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균열의 징후」,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468-502면.
- 최인섭,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2호, 1991. 여름, 221-262면.
- 한상희, 「70년대 단편소설과 법의 무의식」, 『법학논총』 제35권 3호, 2018.09, 221-252면.

<Abstract>

Between legal punishment and social punishment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types in  
Kim Sung-jong's detective novels

Choi, Ae-so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atmosphere of Kim Seong-jong's detective novels changes after the symbolic death of Detective Oh Byung-ho, and how the appearance of cruel and vicious criminals, rather than sympathetic criminals, is central to the themes of *The River of Wandering*(1979), *Seven Roses*(1980), *I Want to Live*(1981), and *White Man*(1981).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images of middle-class criminals and serial killers are solidified, focusing on murders entangled in passion rather than the 1978 *The Fifth Column*.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River of Wandering* as the work that serves as the catalyst for events centered on the emotional turmoil of a middle-class family, and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s from 1979, when *The River of Wandering* was published. B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s in detective novels during the period from 1979 to the early 1980s, when the regime changed and martial law was expanded nationwide, we aim to gain insight into the public's perception of crime and the judicial system at the time.

From 1979 to 1981, the works focus on the transformation of sympathetic criminals such as young maids, prostitutes, and poor fishermen, who appeared in short stories from the early 1970s, into serial

killers or embodiments of desire. Additionally, the works highlight the emergence of detectives like Ha Ma-tae and Oh Byung-am, who remain loyal to their roles as detectives, in contrast to the conflicted detective Oh Byung-ho. We examine whether detectives fulfill their duty to apprehend criminals and ensure they receive legal punishment. Additionally, we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intensity of “legal punishment” and “social punishment” as perceived by the public, and what actual punishments were imposed on criminals during this process.

In these works, the settings also undergo a transformation, shifting from rural to urban environments. Crime scenes that once took place in brothels, islands, and rural reservoirs now unfold in hotels, apartments, and private cars, transforming into urban spaces. While the previous settings represented spaces marginaliz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otels and apartments now occupy the center as glamorous spaces. Additionally, the vagrants and lower-class criminals seen in the novels of Bang In-geun and Heo Moon-nyeong disappear, giving way to “middle-class criminals” driven by ambitions of success and social climbing.

Key words: 1979, early 1980s, legal punishment, social punishment, Kim Sung-jong, detective novel, middle class, criminal, serial killer, family

투 고 일: 2025년 8월 9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